

루돌프 오토의 종교 체험에 담긴 교육적 의미

이 재 일

선문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 체험에 담긴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종교적 감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교 체험은 종교를 이해하는 주요한 대상이다. 종교 체험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종교 체험의 감정적 측면에 주목한 오토는 종교 체험을 성스러움의 체험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를 피조물 감정, 두려운 신비감, 매혹성, 어마어마함, 장엄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성스러움의 체험 내용은 두려움과 매혹으로 대비되어 이해할 수 있다. 바하는 오토가 종교 체험을 두려움과 매혹성으로 구분한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필자는 두려움과 매혹의 양극성으로 구분되는 종교적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에 주목한다. 종교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를 밝혀보고자, 부성애와 모성애의 교육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두려움과 매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교육적 작동방식을 살펴보았다.

프롬에 의하면 부성애는 조건적이고 인위적인 것이고 모성애는 무조건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유아에게 부성애는 존경심을 형성하고 모성애는 안정감을 형성한다. 유아는 이러한 마음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게 된다.

카를 융은 인간은 양극적 요소를 통합하면서 인격을 성숙하게 된다고 하였다. 오토가 주장하는 종교체험도 인격의 형성과 관계된다. 두려움은 인간이 자신을 반성하고 바로잡아가도록 하고, 매혹성은 성스러운 존재에게 다가가 평온과 행복에 취하게 한다. 결국 두려움과 매혹성의 종교 체험은 부성과 모성의 사랑과 유사한 교육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 주제어: 종교 체험, 종교적 감정, 두려움, 매혹성, 모성애, 부성애.

I. 서론

종교를 어떻게 정의 하든 그 정의에는 인간과 세계의 완전성을 향한 소망이 담겨있다. 더 나은 인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는 교육과 만난다. 종교와 교육은 인간을 성숙시켜가는 중요한 두 부문이다. 인류는 성숙한 인격의 표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성인(聖人)이라고 부른다. 성인은 주로 종교계에서 배출되어 존송되고 있다. 이는 종교계가 성숙한 인격자 곧, 사람다운 사람을 지향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람다운 사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사람답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완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 체험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종교적 삶의 과정에서 겪는 체험이 사람을 사람답게 이끌어가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모의 돌봄 가운데서 자녀가 겪는 경험과 루돌프 오토(Rudolf Otto)가 말하는 종교적 체험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한다.¹⁾ 이에 착안하여 오토의 종교적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종교 체험에 담겨있는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종교 체험

1. 종교 체험의 특성

인간은 누구나 삶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종교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생활은 그 주체인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종교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고 다양하며 비합리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체험은 체험자들의 인격과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합리성 밖의 비합리적 특성으로서 초월적 영역에 대한 체험이라 할 수 있으며, 주관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²⁾

요아킴 바하(Joachim Wach)는 여느 경험과는 다른 독특한 것으로서의 종교 체험을 정

1) 종교 체험을 종교 경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종교 경험은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어서 종교 체험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조홍윤, 『종교체험연구 I』, 『동방학지』 Vol.53(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279-280.

2) 김성민, 『종교체험』(서울: 동명사, 2001), 22-29쪽;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서울: 동명사, 1991), 304-306쪽.

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 “궁극적 실재로 체험된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둘째, “궁극적 실재로 파악된 것에 대한 인간 존존재의 전체적 응답”이다. 셋째,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이다. 넷째, “실천적이어서 인간을 행동하게 움직이는 힘, 곧 헌신하게 하는 명령과 규범성”을 지닌다.³⁾

그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정의한 종교 체험에 대해 보편성, 표현의 보편성, 표현구조상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종교 체험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고, 이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에 의해 표현되기 마련이며, 그 표현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이론적·실천적·사회적 표현 형태를 지닌다는 것이다.⁴⁾

종교 체험은 주로 정서적 특성으로 이루어진다. 종교 체험에 근거를 두고 신앙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주로 비합리적 성격에 초점을 두는 것이 된다. 종교를 지적 삶이나 외적 행위보다 내면적 감정으로 보는 일군의 학자들은 종교 연구에서 종교적 감정에 초점을 둔다.

종교가 인간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제임스(William James)는 종교적 감정을 “종교적 두려움, 종교적 사랑, 종교적 경이로움, 종교적 기쁨 등”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그는 모든 종교 체험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기본적인 종교적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⁵⁾ 종교적 감정이란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일상적 감정이 종교적 대상을 향할 때의 것을 지칭한다고 본 것이다.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는 종교의 본질을 종교적 감정에서 찾는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다. 종교는 우주를 직관하려 하며 우주의 고유한 서술과 행위 속에서 그에게 경건히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스스로 어린아이의 수동성으로 우주의 직접적인 영향에 사로잡히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⁶⁾

쉐라이어마허는 종교 체험 중에서도 종교적 감정에 집중한다. 그에게 종교적 감정이란 곧, 초월적 존재에 대한 절대 의존감정이다.

감정이란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의적인 용어이다. 감정(sentiment)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의 내면적인 태도”,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반응”, “가치를 포착하게 하는 기능” 등의 뜻을 지닌다. 정서(affection)란 어떤 대상에 대해 좋거나 싫다고 판단하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상태를 말한다. 정동(emotion)이란 감정보다 더 깊

3)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왜관: 분도출판사, 1989), 119-120쪽.

4) 위의 책, 121-122쪽.

5) William James,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과주: 한길사, 2008), 127쪽.

6)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Über die Religion :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최신한 역, 『종교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56쪽.

은 심리상태로서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강력한 것이다.⁷⁾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감정이란 개념을 위에서 언급한 감정과 정서와 정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종교적 감정은 종교 체험에서 나온다. 종교 체험이란 체험자의 태도이며 반응이고 가치인식 기능을 지니는 것이고, 판단의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상태이며,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종교적 감정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스러움의 체험

종교를 경험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의 핵심은 신성에 대한 일종의 즉각적이고 거의 직관적인 인식으로 구성된다.”⁸⁾ 그들은 종교 체험을 성스러움의 체험으로 표현한다. 성스러움의 개념이 종교의 독자성을 분명히 해준다고 본다. 성스러움은 종교 특유의 것이라는 것이다. 나단 쇠더블롬(Nathan Söderblom)에 의하면, 성스러움은 “신의 개념보다도 더 본질적인 단어”이다. 그것은 “신의 원초적 성격을 형성”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금기적 성격”을 지니며, “생명과 풍요함의 원천이 되는 신비로운 힘”이다.⁹⁾

‘성스러움’ 또는 ‘성스러운 것’은 “모든 종교들 가운데 본래적으로 가장 내적인 핵심으로서 살아 있는 것”¹⁰⁾이다. 오토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체험의 내용에 피조물 감정, 두려운 신비감, 매혹성, 어마어마함, 장엄성 등을 포함시켰다.

첫째, 피조물 감정은 피조물이 초월자를 대할 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다.¹¹⁾ 인간이란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탄생이란 자기 밖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피동적인 것’이다. 피조물 감정은 피조물로 탄생한 인간이 절대 타자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둘째, 두려운 신비감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무서운 비밀의 감정이다. 여기에는 두려움, 압도성, 활력성, 신비의 요소가 들어 있다. 두려움은 “자신의 무성(無性)의 감정이요, ‘공포’ 속에서 객체적으로 체험된 두렵고 위대한 것 자체 앞에서 느끼는 자신의 함몰감”이다. 압도성은 힘, 위력, 위압, 절대적 압도성 등을 말하는데, “객체적으로 의식된 압도적인 것에 대한 대조로서의 자신의 함몰성 내지 무화, 그리고 먼지와 잿더미같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느끼는 감정”이다. 활력성은 생동성, 정열, 감정적 기질, 의지, 힘, 운동, 흥분, 활동, 충동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경험하면 “마음은 활성화

7) 김성민, 『종교체험』, 113-116쪽.

8) Eric J. Sharpe,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윤이흠·윤원철 역, 『종교학-그 연구의 역사』(서울: 한울아카데미, 1986), 208쪽.

9) 김승혜 편저, 앞의 책, 48쪽.

10) Rudolf Otto, *Das Heilige*,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왜관: 분도출판사, 1991), 38쪽.

11) 위의 책, 43쪽.

화되고 열성으로 치달으며 엄청난 긴장과 역동성으로 채워”진다. 신비는 두려움, 기이함, 경이로움을 포함하는 것이다.¹²⁾

셋째, 매혹성은 “독특한 힘으로 끌어당기며, 매료하며, 매혹하는 어떤 것”이다.¹³⁾ 넷째, 어마어마함은 “아주 거대한 것, 너무 커서 우리의 공간적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¹⁴⁾을 의미한다. 다섯째, 장엄성은 “누맨[성스러운] 것이 지닌, 그 자체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객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말”¹⁵⁾이다.

오토의 종교적 감정에 관심을 두는 학자들은 특히 그의 두려움과 매혹성에 주목한다. 오토의 이러한 사유는 슬라이어마허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토는 슬라이어마허의 『종교론』을 편집하면서 거의 모든 문단에 주석을 달았다. 슬라이어마허가 “두 가지 대립된 힘”, “동화와 반발”, “고갈된 자기 지향적 견인과 왕성하고 활동적인 자기 확장” 등을 서술한 문단에 오토는 “세계 내 모든 존재자는 끌어당김[인력]과 밀침[척력]의 두 가지 근본 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석하였다.¹⁶⁾ “두 가지 대립된 힘”에 대한 슬라이어마허의 글은 계속된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단지 두 가지 대립적인 충동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하나는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으로 끌어당기고 자신의 고유한 삶에 편입시키며 가능한 한 자신의 가장 내적인 본질로 완전히 흡수하려는 노력이다. 또 하나의 다른 충동은 영혼의 고유한 내적 자기를 내면으로부터 항상 바깥으로 확장하고 이로써 모든 것에 침투하며 이를 전달하면서 스스로 결코 쇠진하지 않는 동경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사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물질적 자연의 두 힘 중 하나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영혼도 정신적 자연의 두 근원적인 기능을 분유하고 있다.¹⁷⁾

슬라이어마허는 끌어당기고 흡수하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확장하려고 침투하려는 동경이 대립적인 힘이며 충동인데, “두 힘의 가능한 모든 결합은 실제로 인간성에 있다”고 말하여 대립된 두 힘의 결합 또는 공존을 주장하였다.¹⁸⁾

오토는 신비한 것이 두려움과 매혹성을 지닌다거나, 신비에 두려움과 매혹성이 뒤섞여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신비에 찬 두려운 존재가 하늘에 계셔서 생소하면서 접근하기 불가능한 존재인데 그 자체가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은총의 의지”라면서 이를 “융화된 대조성”으로 표현한다.¹⁹⁾ 그리고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의 요소”와 “끌

12) 위의 책, 48, 54, 57, 63, 65-66쪽.

13) 위의 책, 79쪽.

14) 위의 책, 94쪽.

15) 위의 책, 112쪽.

16) 최신한 역, 앞의 책, 19쪽.

17) 최신한 역, 앞의 책, 19-20쪽.

18) 위의 책, 20쪽.

19) 김희성 역, 앞의 책, 153-154, 155, 157쪽.

어당기며, 매료하며, 매혹하는 어떤 것”이 “묘한 대조적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대조적 조화라는 누멘적인 것의 이와 같은 양면성은 전 인류의 종교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스러운 존재 앞에서 “지극한 비천함 속에서 용기를 잃고 그 앞에 떨고 있는 피조물은 동시에 언제나 그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는 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²⁰⁾

Ⅲ. 종교 체험에 대한 교육적 해석

1.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경험

인간은 한 평생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존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다. 인간은 동물적 수준의 상태로 태어나 점점 인간적 수준으로 성숙해간다. 인간 중에서도 최상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성인과 현철로 존중된다.

사람은 어렸을 적에는 부모의 양육에 의존하여 성장한다. 출생 초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집중하지만, 점점 아버지에 대한 관계로 비중이 옮겨간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기쁘고 즐겁게 반응한다. 아동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은 청소년기이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출생 이후 청소년이 되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돌봄, 양육, 교육 등으로 불리는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하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모성애와 부성애의 특성을 구분하였다. 프롬에 의하면, 모성애는 무조건적이고 자연적인 것이다. 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품에 안겨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의 하나이다. 대체로 어린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나, 어른이 되면 이러한 사랑의 충족이 어려워진다.²¹⁾ 반면에 부성애는 조건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상, 사물, 질서, 훈련의 세계를 대표하며, 아동을 세계로 인도하는 사랑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다.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소극적 측면은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자녀는 순종으로 미덕을 보여야 한다. 아버지가 주는 사랑의 적극적 측면은 자녀가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²⁾

유아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에

20) 위의 책, 79쪽.

21) Erich Fromm,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서울: 문예출판사, 2000), 63-64쪽.

22) 위의 책, 64-65쪽.

부응하여 어머니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해준다. 어린이는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 권위, 지도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에 부응하여 아버지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가르친다.²³⁾

이와 같은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관점이 큰 도움을 준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이상을 지향했다. 즉 아버지는 엄격하게 자녀를 대하고 어머니는 자애롭게 자녀를 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로 여겼던 것이다.

자녀가 성숙한다는 것은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자녀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프로름은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밖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에 그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다. ...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이 서로 모순되는 듯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양심을 갖고 사랑한다. ...²⁴⁾

교육의 본질상 그 궁극적 목표는 인격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격적 어른이 되는 기틀은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동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면 인격적으로 성숙함과 동시에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로름도 언급했듯이, 모성애와 부성애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모성애는 여성 호르몬과 같은 생리적 요인에 근거하지만 부성애는 그렇지 않다. 모성애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규범이지만, 부성애는 인간 고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유아는 모성애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모성애는 정서적 경험, 즉 유아의 애착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아의 애착은 모성에 대한 접촉위안 그 자체이다. 모성애가 유아의 인격형성에 기여하는 요소는 애착을 바탕으로 한 안정감과 애감이다.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적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기본신뢰가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유아는 거리낌 없이 주변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인 정적 결합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그러면 부성애는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부성애는 모성애와 다른 방향으로 유아에게 작용한다.

23) 위의 책, 65-66쪽.

24) 위의 책, 66-67쪽.

25) 이계학,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10집(동덕여자대학, 1980), 96쪽.

26) 위의 글, 98-103, 105쪽.

아버지는 나를 받아들이고 정답게 관계해주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유아는 피부로 느낀다.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답게 나를 받아들이지만 어머니의 품속과는 그 느낌이 달라서 어쩐지 낯설고 무엇인가 두렵고 두려움과 정다움이 복합된 그 야릇한 정감을 체험하게 된다. 정답고 좋기는 하지만 낯선 듯한 느낌에서 오는 그 두려움, 이것이 복합된 정감, 유아가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체험하는 정감, 이것이 바로 존경감이다.²⁷⁾

유아는 부성애를 통해 아버지에게 가까이 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워하는 감정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유아가 모성애에 의하여 어머니와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부성애를 통하여서는 아버지와 애착-분리관계를 형성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이러한 애착-분리관계의 감정을 존경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성애는 유아에게 애정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유아는 본능이나 욕구좌절 또는 공격 반응에 의해 공격적 충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부성애는 이러한 공격적 충동을 인내하거나 승화시켜 모방과 동일시에 의한 존경감으로 반응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다.²⁸⁾

그렇다면 모성애와 부성애가 유아에게 주는 종합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동의 인격형성에 있어 모성의 본질은 사랑이고 부성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유아에 있어 모성의 정적 의미는 안정감이요 보호감이며 그것은 모든 관계지움과 유지와 관심과 탐색의 질료이다. 반면에 부성의 정적 의미는 존경감이며 그것은 부자의 관계지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사랑함과 두려움의 복합감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동의 모든 관계지움과 유지와 관심과 탐색을 온당하게 유지해 나가고 탐색해가는 틀이 된다.²⁹⁾

인간의 삶이란 모든 것과의 관계적 삶이다. 이 관계적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는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 모성애는 자녀가 관계의 질료를 형성하고 부성애는 자녀가 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받으면서 유아는 안전감, 보호감, 신뢰감 등을 경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아는 모든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유아는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를 받으면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인격의 질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특히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모성애에 의해 유발되는 애착하려는 감정 요소와 부성애에 의해 유발되는 애착-분리하려는 감정 요소가 통정되는 심리기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フロ이드가 정신적 성숙의 기반이 “어머니 중심의 애착”과 “아버지 중심의 애착”의 “궁극적 중

27) 위의 글, 108쪽.

28) 위의 글, 107-112쪽.

29) 이계학, 앞의 글, 114-115쪽.

합”에 있다고 하였던 것도 이러한 면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위에서 모성애와 부성애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설명의 편의상 양자를 구분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어머니의 사랑에 부성애의 요소가 들어있고 아버지의 사랑에 모성애의 요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 더구나 전통적 가족과 달리 현대사회의 가정에서는 엄부자모의 역할이 뒤바뀌어 아버지가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대하고 어머니가 엄격함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다. 어떤 가정에 서는 부모 중의 한쪽이 주로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2. 두려움과 매혹성의 종교적 감정

오토가 종교 체험을 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초월자 또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체험이다. 그는 성스러움의 체험을 종교적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오토의 성스러움의 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은 특히 이러한 감정이 떨리고 위압되는 두려움의 요소와 매혹적인 요소로 구성됨에 주목한다.³¹⁾

바하는 오토가 성스러움의 체험이 두려움으로 떨리게 하면서 매혹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지적한 것은 위대한 통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서 신에게는 있는 분노와 은총의 양 측면을 말하였다. 바하에 따르면 “절대적인 힘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³²⁾ 필자도 성스러움의 체험이 두려움과 매혹으로 양분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양극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

양극성은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침투한다는 물질적 작용의 기능으로도 존재한다. 인간의 성격에는 침투, 지도, 활동, 훈련, 모험 등의 남성적 성격과 수용성, 보호, 현실주의, 인내 등의 여성적 성격이 있다.³³⁾ 우주에는 다양한 측면의 양극성이 있다. 남성과 여성,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마음과 몸 등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이러한 양극 사이의 상호 작용은 창조력의 원천이다. 유교와 도교는 양과 음의 양극성을 자연의 지배적인 원리 그리고 삶의 원리로 인식한다.³⁴⁾

정신의 양극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신분석학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은 인간의 발달과정의 8단계를 기본 신뢰감과 불신, 자율성과 수치심 등의 양극적 감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각각의 단계에서 양극적 특성들이 서로 긴장하며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건강한 발달로 이해하였다.³⁵⁾

30) 황문수 역, 앞의 책, 66-67쪽.

31) 김승혜 편저, 앞의 책, 51-52쪽.

32) 위의 책, 126쪽.

33) 황문수 역, 앞의 책, 53, 56쪽.

34) 세계경전편찬위원회, 『세계경전 II』(서울: 천주평화연합, 2009), 82-83쪽.

35) William C. Crain, *Theories of Development*, 서봉연 역, 『발달의 이론』(서울: 중앙적성연구소출판부,

카를 융(Carl G. Jung)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 반대되는 힘과 경향들이 전기의 양극과 음극처럼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때로는 결합하려고 끊임없이 긴장하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그는 이러한 양극 구조의 긴장 관계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발생하여 흐른다고 본 것이다. 융도 인간은 양극의 정신요소들을 통합하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간다고 하였다.³⁶⁾

윗토가 주장하는 종교적 감정 중에서 두려움과 매혹성은 그 각각의 특성으로 볼 때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두려움과 매혹성의 종교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들에게는 부모가 신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는 에릭슨의 발달이론을 응용하여 종교적 발달심리를 연구한 존 글리슨(John J. Gleason, Jr.)의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머니는 최초의 신적 존재(mother-god)로 보이고, 어머니의 양육으로 아기는 기본 신뢰감을 형성하며 이는 장차 궁극적 존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는 부모를 신으로서의 부모(parents-gods)로 인식하며 부모를 통해 신의 속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³⁷⁾

엄부자모로 대표되는 부모의 역할을 그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아버지는 주로 엄격하게, 이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자녀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역할을 한다. 자녀가 잘못하면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면서 양육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 반면에 어머니는 대체로 인자하게, 부드러운 감정으로 자녀를 감싸주는 역할을 한다. 자녀가 잘못해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잘하는 일을 칭찬하면서 자녀를 격려하고 포용하려고 한다. 이처럼 부성애와 모성애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엄격과 인자, 이성과 감정, 비판과 칭찬, 격리와 포용, 분리와 합일 등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부성애와 모성애는 가정에서 교육적 작용을 한다.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감싸주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존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 냉철하게 사리판단을 하는 방식을 배우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녀가 성장해가면서 제2의 부모격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와 스승을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일체적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스승은 제자를 자식처럼 사랑하며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따를 때, 거기에 인격형성을 향한 참된 가르침이 있고 참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윗토가 주장한 성스러움의 체험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도, 특히 두려움과 매혹성

1974), 249쪽.

36)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72-73쪽.

37) John J. Gleason, Jr., *Growing up to God: Eight Steps in Religious Develop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pp.26-27, p.40.

의 양극적 측면을 생각해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매혹의 종교적 감정은 체험자로 하여금 성스러운 것에 끌리게 하며 그 존재와 합일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종교적 감정은 체험자로 하여금 성스러운 것을 무서워하며 그 존재와 분리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양극적 종교 감정에 대한 오토의 글을 살펴보자.

귀신이나 신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공포적인가 하면 또한 그렇게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지극한 비천함 속에서 용기를 잃고 그 앞에 떨고 있는 피조물은 동시에 언제나 그 앞으로 나아가려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는 충동을 느낀다. 신비는 단순히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또한 경탄스러운 것이기도 한 것이다. 감각을 혼란케 하는 것과 더불어 감각을 홀리고, 빼앗아 가고, 이상하게 황홀케 하며, 흔히 도취와 흥분으로 격앙시키는 디오니소스적인 누멘의 작용들도 나타나는 것이다.³⁸⁾

인간이 종교생활에서 체험하는 성스러움은 이처럼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우면서도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것이다. 성스러움의 체험을 통해 종교인은 성스러운 것 또는 절대적 존재에게 다가가 평온과 행복에 취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이상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한편 인간의 종교적 성숙은 믿음에 터를 두고 잘못된 현실과 잘못된 자신을 냉철하게 반성하며 자신을 바로잡아가는 가운데 가능하다. 종교적 삶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자신을 반성하며 본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한다.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있는 종교의 세계에서 성스러움의 체험은 하나님 체험으로 인식된다. 오토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람이 사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가장 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유 가능한 것들의 근거요 최상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를 위한 실재”이다.³⁹⁾

성스러움의 체험은 바로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서있는 체험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사랑의 실천자를 대할 때 인간은 그에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와 일체가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무한한 사랑의 절대자를 대하고서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하나님 체험을 할 때 인간이 매혹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라고 할 수 있다. 매혹의 감정은 끌려가 일체가 되려는 ‘합일의 감정’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절대자를 더욱 더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절대적 존재에게 맡기고 그와 일체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면서 지고지선의 절대자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38) 김희성, 앞의 책, 79-80쪽.

39) 김희성, 앞의 책, 91쪽.

절대선의 존재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온갖 추한 면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체험을 할 때 인간이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은 지고 지선의 절대자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공개함으로써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것은 자신이 부끄러워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분리의 감정'이다. 그러므로 이때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동양 종교의 전통에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성스러움의 체험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체험 또한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 체험과 그 양상에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합일의 감정과 분리의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과 매혹성은 양극성으로서 각각 상대적 방향으로 교육적 작용을 한다. 이러한 감정이 어느 한쪽만 나타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양극의 종교 감정이 서로 상보작용을 할 때 건강한 종교생활이 가능하며 인격적 성숙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성애와 모성애의 조화적 가정교육은 종교적 체험의 특성으로부터 나타나는 교육적 효과와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종교 체험은 인간 자체의 분열된 자아 또는 대극(對極)을 통합시키는 자기실현의 과정이라는 주장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⁴⁰⁾

IV. 결 론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서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은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모성애와 부성애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적 작용은 종교 체험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마치 모성애에 의해 자녀가 안정된 상태에서 부모를 닮듯이, 종교인은 매혹의 감정에 의해 성스러운 것에 나아가고 이를 닮게 된다. 또한 마치 부성적 사랑에 의해 자녀가 부모를 어려워하며 자기를 대상화하여 자기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부모에 비취 자신을 추스르듯이, 종교인은 두렵고 떨리는 신비감에 의해 성스러운 존재에게 자신을 비취가면서 자신을 바로잡아간다. 이러한 종교 체험과 종교적 감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40) 김성민, 『종교체험』, 167-168, 174쪽.

참고문헌

- 김성민. 『융의 심리학과 종교』. 서울: 동명사. 1999.
_____. 『종교체험』. 서울: 동명사. 2001.
김승혜 편저. 『종교학의 이해』. 왜관: 분도출판사. 1989.
세계경전편찬위원회. 『세계경전 II』. 서울: 천주평화연합. 2009.
이계학. 「부성의 교육적 기능에 관한 고찰」. 『동대논총』 10집. 동덕여자대학. 1980.
조홍윤. 「종교체험연구 I」. 『동방학지』 Vol.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Schleiermacher, Friedrich Daniel Ernst. *Über die Religion : Reden an die Gebildeten unter ihren Verächtern*. 최신한 역. 『종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황선명. 『종교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9.
Crain, William C. *Theories of Development*. 서봉연 역.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연구소출판부. 1974.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2000.
Gleason, Jr. J. J. *Growing up to God: Eight Steps in Religious Develop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75.
James, William.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김재영 역.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파주: 한길사. 2008.
Otto, Rudolf. *Das Heilige*. 길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 왜관: 분도출판사. 1991.
Sharpe, Eric J.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윤이흠 · 윤원철 역. 『종교학 - 그 연구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86.

원고접수: 2010년 1월 5일 1차심사: 1월 24일 게재승인일: 2월 5일

연구자 소개: 이재일

- ① 전공: 신학, 교육학 / 소속: 선문대학교 순결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Implication of Rudolf Otto's Religious Experience

Lee, Jaeil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educational implication of religious experience. Religious experience is the major subject to understand religions. Although religious experience has various aspects, it may be explained by essential elements. Rudolf Otto concentrated his attention on the emotional aspect of religious experience. He named religious feelings 'creature-feeling' which may be divided into terrifying(*tremendum*) and fascinating(*fascinans*). Joachim Wach valued Otto's idea about it highly.

I am also interested in Otto's idea which is divided into terrifying and fascinating. I especially concentrate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terrifying and fascinating. Firstly, I tried to understand paternal love and maternal love in order to explain the educational implication about polarity. Secondly, I explained the educational mechanism of terrifying and fascinating.

According to Erich Fromm, paternal love is conditional and unnatural, maternal love is unconditional and natural. Children's respects are molded by paternal love and their stability are molded by maternal love. Children build various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these.

Carl Jung said that human beings form their character through unifying polarity. Religious experience is also related to building character. Terrifying makes human beings reflect on themselves and correct their behavior, fascinating makes them get close to the Holy and be intoxicated with peace and happiness. In conclusion, it can be described that religious experience with terrifying and fascinating has educational influence on human beings as paternal love and maternal love do on children.

Key words: religious experience, religious feelings, terrifying(tremendum), fascinating(fascinans), paternal love, maternal love